

광주FC, 조나탄 앞세워 후반기 돌풍 일으킨다

21일 강원FC 상대 홈경기... 탄탄한 조직력 극대화 새 출발 다짐 '통합 득점왕' 조나탄 영입 득점력 개선, 수비진의 집중력 키워드

휴식기를 끝낸 광주FC가 후반기 '돌풍'의 주역 을 꿈꾼다. 광주FC는 21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 구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1 20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A매치·AFC 휴식기를 끝내고 치르는 후반기 첫 경기다. 광주 선수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최하위 탈출을 위해 스파이크 끈을 다시 조여 줬다.

광주는 전반기에 상대의 허를 내두르게 하는 투혼의 플레이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얇은 선수층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속 부상과 체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원하는 결과는 내지 못했다.

4승 3무 12패(승점 15)의 성적으로 최하위로 반환점을 둔 광주 선수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후반기를 준비했다.

광주는 앞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팀을 재정비했다. 광주의 장점인 탄탄한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빌드업을 통한 결정력 향상에도 공을 들였다. 또 수비훈련 등을 통해 전반적인 팀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도 전력 강화 요인이 됐다.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을 하며 패스 공급에도 나섰던 이찬동과 부주장 여봉훈,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는 두현석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털고 후반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발견한 원석 허을은 휴식이 동안 세밀함을 더했다. 또 19경기에서 17득점에 그친 공격력 강화를 위해 새 전력도 가세했다. 광주를 대

표했던 펠리페가 청두로 떠났고, 그 자리에 'K리그 1·2 통합 득점왕' 출신 조나탄이 합류했다.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니라서 강원전 출장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에이스' 임원상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 자리를 비운 만큼 조나탄이 7월 공격을 이끌어줘야 한다.

후반기 첫 상대로 만나는 강원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과 공격 전개, 패스 플레이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 조재완, 임재민, 한국영, 김대원, 윤석영 등 걸출한 실력의 선수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광주는 앞선 강원 원정에서의 좋은 기억을 살려 에타게 기다리던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11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나온 이한도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역대 전적에서도 6승 8무 4패를 기록하는 등 광주는 안방에서 강원전 우위를 이어 승점 3점을 추가하겠다는 각오다.

코로나 악재가 광주에는 호재가 됐다. 예정대로라면 광주는 24일 전북전과 바로 후반기 두 번째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경기가 미뤄졌다. 체력배분을 생각하지 않고 강원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재충전을 끝낸 광주가 결정력을 더해 후반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휴식기 동안 재충전을 끝낸 광주FC가 21일 강원과의 홈경기를 통해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캡틴' 김원식이 앞선 11라운드 강원전에서 공을 드리블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류현진, 7이닝 완봉투 시즌 9승

후반 첫 경기서 빛나는 호투... 토론토 2연승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사진)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 완벽한 투구로 에이스의 부활을 알렸다.

류현진은 19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7이닝 동안 삼진 4개를 뽑으며 3안타 무실점으로 5-0 완봉승을 거뒀다.

메이저리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더블헤더 경기는 7이닝으로 치른다. 공 83개를 던지며 볼넷 1개만 허용한 류현진은 시즌 9승 5패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을 3.56에서 3.32로 떨어뜨렸다.

류현진은 전날 비로 인해 등판이 하루 연기됐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다. 최고시속 150km 안팎의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존 구석구석을 찔렀고 주무기인 체인지업도 예리하게 떨어졌다.

1회는 직구 4개만으로 처리했다. 텍사스 1번타자 아서 카이너-팔레파에게 직구 2개를 던져 좌익수 뜬공으로 잡은 류현진은 네이트 로와 아놀리스 가르시아에게 각각 직구 1개로 내야방불을 만들었다. 2회초에는 선두타자 조이 갈로에게 중월 3루타를 맞아 실점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존 히스를 삼구 삼구로 처리한 류현진은 엘리 화이트를 1루수 뜬공으로 잡은 뒤 데이비드 달마져 삼진으로 슈아내 실점 위기를 넘겼다.

3회초에는 2사 후 좌전안타와 볼넷으로 1·2루에 몰렸으나 가르시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위기를 넘기자 토론토의 타선이 힘을 냈다. 토론토는 3회말 로우르데스 구리엘 주니어의 내야안타와 산티아고 에스피날의 2루타로 만든 무사 2·3루 찬스에서 마커스 시미언의 내야땅볼과 보 비셋의 적시타로 2점을 먼저 뽑았다. 토론토는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포수 다니 켄슨이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날려 3-0을 만들었다.



승리를 예감한 류현진은 6회초 1사에서 로에게 2루타를 맞았으나 후속타자 가르시아와 갈로를 연속 땅볼로 처리해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다.

토론토는 6회말에도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차를 벌리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마지막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존 히스를 3루 땅볼, 화이트와 달을 나란히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 경기를 마무리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인 토론토는 후반기를 2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연합뉴스

KIA, 코로나 전원 음성... 후반기 일정 준비한다

'두산발'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 재검사 후 비상상황 해제

'호랑이 군단'의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됐다.

KIA 타이거즈가 지난 19일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두산발' 코로나19로 가슴을 졸였던 KIA는 한시름을 털고 후반기 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KIA에 처음 코로나19 공포가 찾아온 것은 한화와의 원정경기가 예정됐던 지난 8일이었다.

앞서 잠실을 다녀왔던 한화의 원정숙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한화 선수단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경기가 취소됐다.

한화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KIA는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 소식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에는 KIA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야 했다. 두산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앞서 2일부터 홈에서 두산과 주말 시리즈를 치렀던 KIA도 검사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날 경기 준비를 마쳤던 KIA는 부라부라 옷을 갈아입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다행히 선수단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11일 경기를 앞두고 4일 두산전에서 포수 마스 크를 썼던 김민식이 밀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경기가 지연됐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같은 경기에서 1루에 섰던 류지혁이 밀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KIA 선수단은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면서 가슴 졸이는 1주일을 보내고 18일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KIA 선수단은 검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오 연습경기'를 소화하는 등 고생을 했다. 그리고 19일 '전원 음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IA는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후반기 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그라운드에서도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KT의 코치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K리그1 성남에서도 7명이 확진자가 더해지는 등 모두 22명이 집단감염됐다.

끝났지만 끝까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다. 'KBO 코로나 사태'의 최대 희생양이 된 KIA 선수단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모리카와, 디오피론 우승... 메이저 통산 2승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영건'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디오피론(브리티시 오픈)을 제패했다.

모리카와는 19일(한국시간) 영국 샌드위치의 로열 세인트조지스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디오피론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15언더파 265타로 우승했다.

조던 스피스(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린 모리카와는 작년 8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메이저대회 2승 고지에 올랐다. 그는 이번이 메이저대회 8번째 출전이었다.

처음 출전한 PGA 챔피언십과 마찬가지로 디오피론도 이번이 첫 출전이었다. 처음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많았지만, 두번이나 처음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지금까지 없었다.

24세의 모리카와는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25세 이전에 PGA 챔피언십과 디오피론을 제패한 두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PGA투어 통산 5승째. 모리카와는 도쿄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모리카와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며 "프로 무대에 뛰어든 이후 내 능력



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디오피론에 처음 출전한 그는 지난 주 스코티시 오픈에 출전해서 영국식 링크스 코스를 처음 겪어봤다. 스코티시 오픈에서 그는 공동 71위에 그쳤다.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이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모리카와는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며 역전극을 펼쳤다. 안병훈(30)은 3언더파 67타로 힘 내 공동 26위(3언더파 277타)로 순위가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스페이스 캠프: 새로운 시대
4관	랑중
5관	블랙 위도우
6관	랑중
9관	랑중, 콰이어트 플레이스 2
7관 씨네커튼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오필리아,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8관 씨네커튼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발신제한, 컨저링3: 악마가 시켰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